

# 사이버 禪공부 어떻게 할까?



사이버 선 수행은 시·공을 초월해 선지식을 만나 수행점검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사진은 일터에서 사이버 수행을 하고 있는 소비자보호원 변호회원 김중관씨(왼쪽)와 누리꾼 선택들에게 수행지도도를 해주고 있는 정목 스님(오른쪽)이다.

## # 현실과 수행의 접점 사이버 마음공부

인터넷 다음 카페 무불선원(cafedaum.net/mubulsunwon)에서의 '스님과의 대화방'. 매주 목요일 오후 8시30분~10시30분이며, 이곳에서는 '사이버 수행점검'이 진행된다. 재가불자 누리꾼들은 물론, 무불선원장 석우 스님은 답한다. 일상에서 화두 드는 법, 경계극복법 등 수행에 대한 모든 의문과 대답들이 오간다. 이 같은 사이버 공부점검은 서울 우곡선원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1999년 9월 홈페이지(www.zenkorea.org)를 개설한 우곡선원은 재가 수행자가 의심하는 점을 언제든지 선원 홈페이지의 '경계와 점검' 코너에서 해결해주고 있다. 또한 '수행일기'에서는 재가불자가 경계 극복 체험담을 자발적으로 공개해 수행의 경계로 삼고 있으며, '법상토론'에서는 자신의 경험한 선적 체험을 토론을 통해 검증한다.

무문관 수행을 하고 있는 선도회에서도 지난 89년부터 대구, 제천 등 전국 6곳에 거주하는 6명의 재가수행자를 대상으로 '사이버선원실점검'을 하고 있다. 현재 사이버 상에서 수행문답이 이뤄지는 사이트는 대략 20여 곳. 이 가운데 전통 조사선의 선문답 형식에 따라 수행문답을 하고 있는 사이트는 무불선원, 무심선원, 선도회, 우곡선원, 보림선원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무불선원과 무심선원, 우곡선원은 실제로 문답식 법회를 통해 조사선의 공부를 지도하는 등 온·오프라인 상에서 활발한 문답이 이뤄지고 있다. 공통적으로 일대일 점검과 참선 법문이 주요 공부 형식으로,

## '생활선'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다.

선도회 지도법사 박영재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는 "사이버 수행은 시·공간의 제약 없이 그 자리에서 즉문즉답으로 공부경계를 점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이런 공부원리는 간화선 수행을 확립한 대혜종고 선사가 당대 지식인들과 서신왕래를 통해 공부를 점검했던 <서장>에서 비롯된 것으로, 단지 매체가 편지에서 이메일로 대체됐을 뿐"이라고 말한다.

## # 시간적 공간적 제약 해소

직장이나 자영업자들의 경우, 시민선방이나 선지식을 찾아 나갈 여유가 없다.

직장인 정미자(54·경기 양주시청 민원실)씨는 3년째 사이버 선방 '열린침(cafedaum.net/buruna21)'에서 시습 법문 스님(서울 열린선원장)에게 수시로 자기 수행을 점검받고 있다.

정씨는 "사이버 수행도량에서 의문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질문을 게시판에 올리면 수시로 스님께서 답변해줘 공부에 유익하다"고 말한다.

선 수행의 대중화·생활화 측면에서도 사이버 선공부의 필요성은 대두된다. 선어록에서나 볼 수 있는 수행문답이 더 이상 수행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인식이 재가자들 사이에서 불기 시작했다는 평가다.

## # 동영상 법문·설법 텍스트 있는지 확인

그럼, 수많은 사이버 선 수행 사이트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 우선 개설된 사이트의 각종 메뉴를 살펴봐야 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은 '선지식들의 동영상 법문 프로그램과 설법 텍스트 등의 여부'다. 글이나 문자로 선의 세계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다는 사이버 수행의 한계성 때문이다. 우곡선원 장명재 원장은 사이버 수행정보의 '육식'을 가릴 수 있는 안목을 가지라고 당부한다. 이를 위해 '사이버 수행 점검표'를 만들 것을 권한다.

먼저 자기 생활패턴과 사이트의 지도점검 일정이 맞는지를 확인한 뒤 △점검 지도법사의 직접 친견이 가능한지 △오프라인 상에서 정기적인 법회 및 수행 프로그램이 있는지 △기준에 활동 중인 오프라인 상의

"개에게 불성이 없다"란 조주 스님의 말이 화두 참구하는데 걸림이다. 어떻게 하면 '무'자 화두를 잘 잡을 수 있을까요? (태양)  
"업식은 분별심을 일으키는 때(俟)란 말인데, 어찌 업식이 불성이겠습니까? 그렇다면 개에는 불성이 없다"고 한 조주 스님은 이 말을 무슨 뜻으로 했겠습니까? (무불)  
"위로는 모든 부처님과 아래로 유정무정의 중생이 다 불성이 없지 못하는 외로운 개인이 홀로 불성을 머금고 있어, 돈연히 일체 제물을 제도하고 있습니다." (태양)  
"일체 생각이 폭 쉬어버린 그 곁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무불)  
"그 자리도 추세를 차고 있는 형국입니다." (태양)  
"평안하면 공부 끝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직 할 일이 많은 거죠." (무불)

### 수행 문답하는 사이트

무불선원	cafedaum.net/mubulsunwon
현정선원	www.fuoye.or.kr
관수련회	www.kwan.or.kr
마하수련원	www.mahazen.org
명상아카데미	www.bodhitao.com
바리보티기상	www.paraboki.net
선림도량	www.daedosun.org
소리산참선캠프	cafedaum.net/sorisansan
아미타파	cafedaum.net/amitapa
안국선원	www.ahnkookzen.org
여래선원	www.buddhapia.cc
우곡선원	www.zeakorea.org
위빠사나	vipassana.buddhism.org
선경	sungag.buddhism.org
정혜선방	myhome.net/budman
축사사	www.chockkorsa.org
호두마을	www.vmcw.org
보리수선원	www.borisu.or.kr
보림선원	www.borim.co.kr
연방축선원	lotuspond.compuz.com
구도역정	cafedaum.net/buddhapia.com/community/jgkim

수행생활과 사이버 수행의 병행이 가능한지 △단계별 사이버 수행 프로그램이 있는지 등을 알아 봐야 한다.

가령, 수행 초심자가 사이버 수행을 막 시작할 때는 지도법사의 비디오·오디오 법문이 있는지부터 파악한 다음, 지도법사의 실시간 수행점검이 가능한지, 경전 및 선어록 공부프로그램의 여부, 수행정보의 메일링 서비스가 지속되는지 등을 알아 보아야 한다.

## # 선지식과의 오프라인 점검 필요

사이버 상에서 문답을 통한 수행점검에서 주의할 점은 없을까? 수행 지도자들은 정기적인 선지식과의 '면대면(面對面)' 점검이 전제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부산 무심선원 김태완 원장은 "사이버 수행자들의 수행 경험을 '생생하게' 들려다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순기능이 분명히 있다"면서도 "적어도 1년에 몇 차례는 직접 수행지도자를 만나 공부를 점검받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선도회 지도법사 박영재 교수도 마찬가지로 지적을 내놓는다. 실명이 공개되지 않는 수행문답은 자칫 '불성실한 질문, 엉뚱한 대답'으로 이어질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반드시 수행 지도자를 정기적으로 만나, 초간장 상태에서 공부점검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글=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 <45> 성모전

룸비니의 마야당은 부처님의 어머니 마아부인을 모신 곳이다. 부석사에는 당나라에서 신라까지 의상대사를 쫓아온 남자를 위한 한 평정도 크기의 선묘당(善妙堂)이 단아하게 자리잡고 있다. 그리하여 조사선의 길목을 천년동안 지키고 서 있다. 대사를 위해 그 무거운 바위를 공중에 띄우는 이적을 보여 천년기암의 터를 뛰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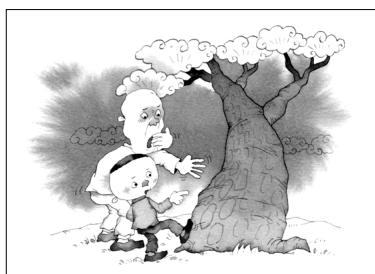
김제 만경벌에는 진북대사의 어머니를 모신 성모암(聖母庵)이 있다. '무자손 천년 항화지(無子孫 千年香火之地)'라고 했다. 자손이 없어도 천년동안 제사를 받을 수 있는 명당이라고 하여 찾는 사람이 많다. 특히 출가한 스님네들은 자손없이 천년동안 제사를 받기 위해서 일부러라도 들려야 할 곳으로 알려진 그 절전은 공개된 비밀이기도 하다. 이는 법손의 흥성과 불법의 흥성을 바라는 또 다른 마음의 표현이라 하겠다.

지나는 길에 한번 들렀다. 절은 마을 구

랴다면 법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몸을 바꾸어 다시 태어날 수밖에 없었다. 노승은 그 길로 황해산을 떠났다. 마침 시냇가에서 빨래를 하는 처녀를 보고서 정중히 물었다. "쉬어갈 수 있겠소?" "제 부모님이 저 마을에 살고 있으니 부탁해 보십시오." "그대의 허락이 필요하오."

별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노승은 사라졌다. 노승이 원하는 바는 그 집에서 쉬는 것이 아니라 그 처녀의 태에서 열 달을 쉬고서 다시 태어날 생각으로 몸을 구했던 것이다. 그녀는 주저 집안의 막내 딸이었다. 그 날 이후 태기가 있었다. 그 부모는 남부끄럽다며 엄청 꾸중을 했다. 딸 할 곳으로 알려진 그 절전은 공개된 비밀이기도 하다. 이는 법손의 흥성과 불법의 흥성을 바라는 또 다른 마음의 표현이라 하겠다.

로서는 영문을 모르지는 않으나 참으로 억울했다. 이는 법손이 그녀가 가는 곳을 따라 프락과 방인으로 비쳐어 밤새도록 대낮처럼 밝았으며 그윽한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 이웃



## 5조로 훌륭하게 키운 어머니 기린 곳 룸비니에 마야당, 김제에 성모암 있어

석에 다소 초라해 보였지만 모친의 무덤만큼 단아하게 가꾸어져 있었다. '고시례전'에는 영정도 함께 모셔놓았다.

6조혜능 선사의 스승인 5조홍인 대사가 머물던 호복성 황매현 동산의 오조사에는 성모전(聖母殿)이 있다. 이를 그대로 옮긴 스님 어머니를 기리는 전각이다. 그런데 홍인 스님의 어머니는 처녀였다.

"처녀가 애를 배도 할 말이 있다"는 속담이 있다. 하지만 이진 핏계가 아니라 정말 말이 많았을 것이다.

4조 도신 스님이 파두산에서 머물고 있을 때였다. 그 산중에 이름없는 노승이 함께 살고 있었다. 그 노승은 늘 소나무만 심는 것으로 수행을 대신하고 있는 까닭에 재승도인(載松道人)이라고 불렸다.

그러던 어느 날 도신 스님에게 법을 청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퇴짜를 놓는 것이었다. 속내는, 설해줘 봤자 늙어서 별로 써먹지도 못할 것이리라 그게 이유였다.

설사 도를 깨친다고 한들 널리 펼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

사람들이 모두 놀라면서 함께 기뻐하였다. 아이가 다섯 살이 되자 어머니께 하직인사를 올리고는 옛날 도신 선사를 찾아가다.

"재승(載松)이 왔습니다." "무엇으로 그대인줄 증명하려는가?" 아이는 방 앞에 자기가 심어놓은 소나무를 가리키면서 '린포제'임을 알렸다.

그리하여 4조 법을 이어 5조가 되었다. 홍인의 제자들은 스승을 낳아준 그 처녀어머니를 위해 위로결 보은 의미로 오조사에 성모전을 지었고 천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향화를 올리고 있다. 무위자(無爲子)스님의 오조사영정(靈幀)은 이를 잘 압축해놓고 있다.

영공들 아버지가 없었지만 조사에겐 오직 어머니뿐(人孰無父祖獨有母) 그 어머니가 누구신가 하면 주저 집안의 막내딸이었네(其母爲誰聞氏季女)

도도히 흐르는 냇물이 큰 강으로 흘러가듯이(濁港滔滔入大江) 문 많은 변함없이 정안으로 가는 길이다(門前依舊舊長安路)

■ 원형 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 천안통. 천이통. 의통

양수영 원장은 천안통, 천이통, 의통이 열린분으로 영화 화면 보듯이 영가들과 대화를 하여 병의로 인해 중병에 시달리는 분들을 치유합니다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흰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병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는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 <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하늘의 기운이 들어오는 약손을 만들어 드립니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영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병, 조울증, 강박증,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았더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 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 ※ 전생회면보편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떠한 사실도 알게됩니다.
- ※ 전화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천일선원 소백산수련원  
054) 638-2224 <경북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 "운명"을 읽고 나면 성공이 보인다!!!

마음과 운명을 바꾸어 주는 책 ○ 오희규 실화소설



■ 주요수룩내용 ■  
궁합이야기 성기가 말을 만들어요 땀이 미쳐가고 있어요 의처증 이야기 바꿔 놓고 생각하기 실수의 흔적 처제와의 불륜 육체란 무엇인가? 입시이야기 성형수술이야기 제발 시집가고 싶어요 세번 결혼한 겁사남 잉태와 섹스의 비밀 남편과 제발 헤어지게 해 주세요 두번 태어난 보일공공의 행복 성공하는 사람은 다르다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노처녀의 사랑이야기 넘치는 정력을 주체할 수 없어요 자신의 처지를 결하여 인정하라 운명을 바꾸는 법

전3권 완간기념 할인판매 50%



신곡판 350쪽 각권정가 10,000원  
전집구입시 15,000원 후불제!  
(062)266-1083, 266-6693  
으로 전화주시면 책 먼저 보내드립니다  
입금계좌: (예금주: 오희규)  
동행 601175-52-016521

서울·마포구 아현3동 618-22  
전화 (02)365-8172  
팩스 (02)365-8173  
홈페이지: www.indeenet.co.kr

교도수감생활 하시는 분은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연락처(우편번호 500-500)  
광주광역시 북구 청옥(망월)동 374-2번지  
전화: 062-266-6693